



#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4

(1935년 發行分)

이 창 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 —동양적인 착상의 실시—

### 1. 썰 발행 4주년의 해

1932년에 시작한 썰 발행 사업이 4주년에 들면서 그동안 홍보와 계몽에 주력한 관계로 처음에 비하면 상당한 인식을 갖게 되었으나 한국인에게 영합되는 여러가지 착상의 개발에 부심한 점이 여실하게 보이며, 기발한 착상을 과감히 실천에 옮긴 해라고 할 수 있다.

### 2. 썰첩의 형태 변경

처음 해부터 3년간은 소위 #5×2 Pane의 가장 보편적인 썰첩을 발행하여 왔으나 이 해에는 썰첩 Pane이 #3×3인 9매의 썰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9매의 Pane 5장을 칠하면 썰이 45매인데 50매의 썰첩을 만들려다보니 마지막 Pane은 5매의 썰과 4매의 탭(TAB)을 배합하여 제작되었다.

어찌보면 이 해의 썰은 가로형으로써 가로로 5매의 썰을 배치하여 #5×2의 Pane을 만들면 너무 길어져서 휴대하기에 불편하여 #3×3의 Pane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Pane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한국지도를 그린 탭(Tab)을 넣는

기발한 착상은 과히 탄복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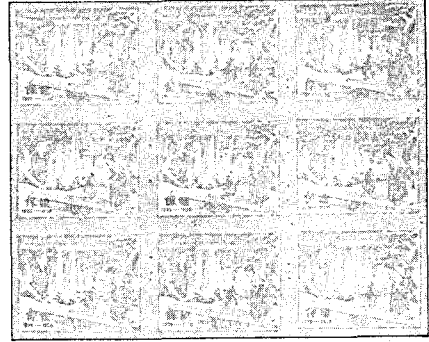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에 9자가 붙은 해를 아홉 수의 역년(疫年)이라고 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나이에 아홉 九字는 싫어하나 99세는 백수(白壽)라 하여 크게 백수연(白壽宴)을 열고 축하를 하는데, 동양에서 일본인은 49세를 항상 고생한다하여 싫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유명한 고승이었던 '일휴선사(一休禪師)'는 칠복신(七福神)이 칠척(七隻)의 배에 타서 왕림하는 해인데 무엇을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며 기지있게 좋은 축으로 돌리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했으며, 노름판에서 아홉수는 '가보'라고하여 매우 강한 숫자로서 귀중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9매의 썰 Pane은 셔우드 홀 박사가 동양적인 숫자의 묘를 평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것을 실천에 옮긴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림 1은 처음부터 5장째까지의 Pane이며, 그림 2는 마지막 Pane이다. 그리고, 썰첩의 Pane에도 I 판과 II 판이 있으나 전지에서 상설하기로 한다.

### 3. 미니 포스터의 출현

홀 박사는 크리스마스 썰의 포스터를 목판화로써 조선종이에 인쇄하여 홍보, 선전계몽에 많은 힘을 쏟으며 1932년부터 1939년까지 해마다 발행하였는데, 크기가 너무 큰 까닭에 수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미니 포스터는 표준 우표 앨범에도 수납되는 190×270mm크기이니 썰 앨범에 첨부하여 두면 발행의 여러가지 자료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

—크리스마스 썰 50매 1원(圓) 썰첩  
—크리스마스 썰 25매 50전(錢) 전지  
—복심자 엽서 썰 2매 5전(錢)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매우 흥미로운 인쇄물이며,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뒷면에는 선진국의 결핵사망률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으니 매우 재미있는 인쇄물이다. 다음해의 1936년의 미니 포스터의 뒷면에도 동일한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그림 3, 4참조)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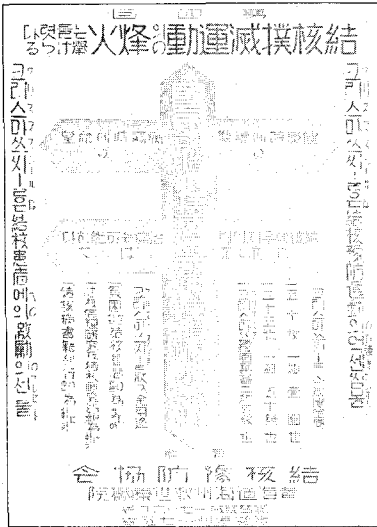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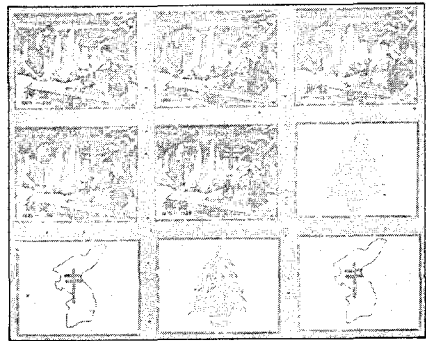


그림 3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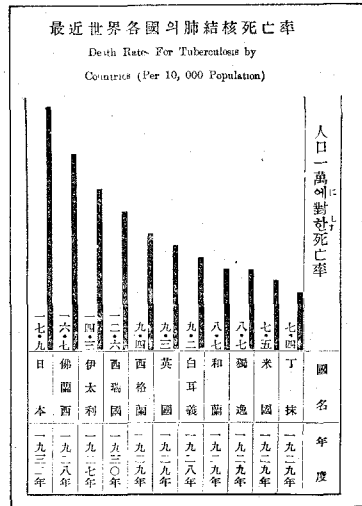


그림 4 뒷면

#### 4. 썰의 전지

1935년의 썰도 어떠한 이유인지 I 판과 II 판의 두가지가 존재하며, 전문 수집가는 대형 썰, 소형 썰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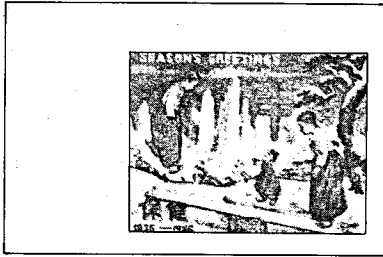
1936년의 썰 발행 5주년 기념 소형시트의 뒷면에 보면 1935년 썰이 Type I과 Type II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있어 일반적으로 Type I이 초판이고 Type II가 재판인 수정판이라 하지만, 이것은 판 번호가 반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처음 인쇄한 것이 다갈색 썰로서 너무 색상이 어두워 밝은 오렌지색으로 고칠때 판을 전면 고친 관계로 대형과 소형의 썰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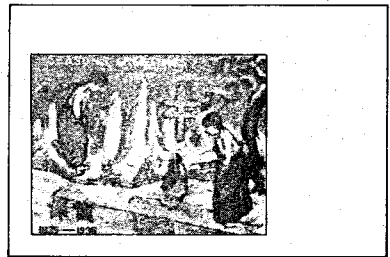
따라서 대형 썰은 오렌지색 썰로 호칭되고 있으며, 소형 썰은 다갈색 썰로 호칭되어 있기도 하다.

I 판은 썰이 큰 반면에 썰과 썰사이의 소여백(Gutter)이 4mm이며, II 판은 썰의 크기가 적어진 반면에 소여백이 4.5mm로 넓어지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 1935년의 판식의 식별



(Type I)



(Type II)

인 면 천 공	31×24.5mm II	30×24mm II
특 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면이 Type II보다 크고 테두리선이 주홍색이다.</li> <li>2. 전경의 금강산이 흰색에 가깝게 밝고 바깥은 노란색이 많이 포함된 담갈색으로서 전체적으로 밝게 보인다.</li> <li>3. SEASON'S GREETINGS의 글씨체가 Type II보다 굵다.</li> <li>4. 널판 받침의 테두리가 불명료하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인면이 Type I보다 작고 테두리선이 암적색이다</li> <li>2. 전경의 금강산이 어둡고 바닥이 농갈색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인다.</li> <li>1. SEASON'S GREETINGS의 글씨체가 Type I보다 가늘다.</li> <li>4. 널판 받침의 테두리가 명료하다.</li> </ol>

## 5. 복잡자엽서

1934년처럼 대형도안과 소형도안 두종류가 있으며, 대형도안에 있어서는 뒷면에 엽서라는 글자의 인쇄가 누락된 것도 있다.

PC-1 엽서 인쇄 누락.

PC-2 엽서 글이 있음.

PC-3 엽서라는 글이 있으며, 누락된 것은 미발견임.

주). PC-1, 2, 3은 Green World Seals Catalogue No. 임.

도안은 썰과 흡사하나 배경의 산이 금강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고 낮은 산을 그리고 있으며, 소형 도안에는 복잡자

표시가 있고 대형도안에는 없다.

널뛰는 것을 보고 있는 어린이의 오른손이 썰에서는 올리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추워서 호주머니속에 넣고 있는 것을 그렸다.

## 6. 크리스마스 카드

복잡자엽서 대형 도안과 같은 것이 발행되어 있으나 판매 여부는 미상이며, 인면 크기는 82×131mm로서 섬유들이 조선종이의 봉투에 들어 있다.

## 7. FOLDER

크리스마스 썰과 흡사한 널뛰기 도안으로 배경은 금강산이고, 구경하고 있는 소년의 오른손이 무엇인가 흥겨워 널을 띄고 있는 소녀에게 말하고 있는듯 하다.



◀ 소형복잡자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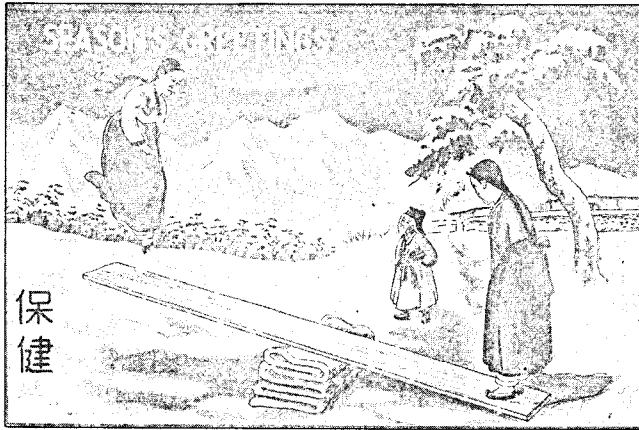


◀ 대형복잡자엽서

一、此圖人皆爲一氣血虧損者宜傳此圖。  
 二、用藥時宜早服。此藥宜探察其爲病。이러한 心을  
 三、用藥時宜早服。此藥宜探察其爲病。이러한 心을  
 四、用藥時宜早服。此藥宜探察其爲病。이러한 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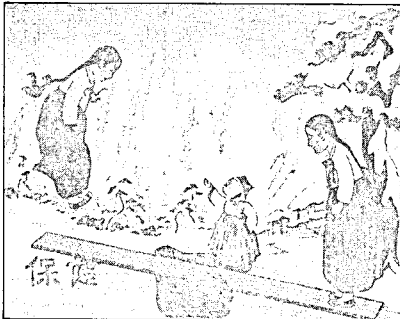
## 8.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35년	뒤의 배경은 금강산임	
도안내용	널뛰기		
도 안 자	최 신 영		
인 면	30×24mm		
천 공	11		
쇄 색	5도		
전지구성	5×5=25매		
판매가액	2전		
Booklet Pane 구성	3×3=9매		마지막 Pane은 5 Seal+4 Tab 임
Booklet Pane 규격	116×88mm ±2mm		
인 쇄 소	보진제		



◀ 크리스마스카드

### ▼ FOLDER



## 9. 참고 문헌

- 1).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1978, Mcl Associates, McLean Virginia by Sherwood Hall
- 2).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by Henry Irwin
- 5). 닥터홀의 조선회상, 김동열 역, 1984, 동아일보사 卍